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17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개원식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이 지난해 11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이 지난 3월 17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인구·박종학 고문, 강석대 명예회장을 비롯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김광우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종일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최상홍 한일MEC 회장 등 국회의원과 기계설비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특히 불황의 여파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기계설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신기술 보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설립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설비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권위있는 전문 산업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하며,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구 초대 원장은 개원사에서 “기계설비분야의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과 신기술 연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권위 있는 산업연구원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회와 조합, 그리고 학회 및 정부와 긴밀한 산관학연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비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실



환영사를 하는 이상일 이사장



개원사를 하는 이연구 원장

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

수현 의원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들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 및 격려사를 했다.



박수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소나기가 많이 내릴 때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우산을 만드는 것이 지혜”라며 “어려운 건설 여건을 극복해내려는 전문 연구원 설립은 기계설비업체가 튼튼한 우산을 스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래 방향을 이끌어 가려는 지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국장

국토교통부 이원재 국장은 “기계설비산업은 미래친환경 정보화 사회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라면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업계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발굴, 해외시장 개척 등 합리적인 정책연구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 기계설비를 미래산업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김광우 회장

대한건축학회 김광우 회장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첨단 친환경 녹색설비기술을 개발하며,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 등을 통해 설비산업의 중흥을 선도해 나가는 전문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박종일 회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박종일 회장은 “기계설비산업분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강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구원이 정책대안 마련 및 신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녹색건설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한 신기술개발 연구에도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은 “기계설비분야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원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일MEC 최상홍 회장

한일MEC 최상홍 회장은 “저는 약50년 전 설비설계·시공 전문회사를 만들면서 사명을 ‘한일설비연구소’라고 명명할 만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기계설비산업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이 연구원 설립의 적기이며, 오늘 개원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앞으로 기계설비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개원 기념 케익 커팅식

협회 박인구 고문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인구 고문은 “협회가 설립된 지 26년째가 되며 그동안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왔는데, 연구기능이 빠져 있어서 항상 아쉬웠다”면서 “협회·조합·연구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기계설비 발전에 노력해 주길 바라며,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원 창립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한 외부인사 및 협회 임직원에게 감사패 전달

립에 기여한 유호선 송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등 외부인사 3명과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등 협회 임직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성명	소속	직위
유호선	송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강병하	국민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조현일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 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장

한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이날 개원식에서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연구원 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개원식 후 기념촬영